

## 수습사무관들, 행정현장으로 힘찬 날개짓!

-중앙공무원교육원 제55기 신입관리자과정 수료식 개최-

지난 2010년 10월 29일(금) 오전 10:06 중앙공무원교육원(원장 윤은기)은 행정고시에 합격하여 신규 임용된 수습사무관들을 대상으로 지난 6개월 간(2010. 4. 26 ~ 10. 29) 「제55기 신입관리자과정」을 운영하고, 10. 29(금) 오전 수료식을 개최하였다.

행정안전부 맹형규 장관은 이날 수료식에서 고된 훈련과정을 이겨낸 신입사무관들의 노고를 격려하면서, “그 어느 때보다도 국민을 섬겨야 하며, 따뜻하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가 줄 것”을 당부하였다.

“특히, 다음달에 G20 정상회의가 열리는 만큼 높아진 우리의 국격을 공고히 하고, 더 큰 대한민국을 향한 초석이 되어줄 것”을 강조하였다.

이번 신입관리자과정은 공직자로서 반드시 갖추어야 할 올바른 국가관, 공직관 및 책임의식 확립과 함께 핵심인재로서의 경쟁력 배양에 초점을 두고 운영되었다. 특히 민간인 출신 최초의 교육원장인 윤은기 원장은 ‘공무원사관학교’라고 불릴만큼 신입사무관들에게 엄격한 규율을 적용함은 물론 공직자로서의 자긍심·사명감 고취 및 공직윤리 함양 등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었다고 밝혔다.

324명의 수습사무관들은 지난 4월 26일 사무관시보로 임용되어,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6개월의 교육을 받았으며, 앞으로 6개월 간 배치받은 부처에서 실무수습을 더 받은 후, 2011년 4월 26일 정식임용될 예정이다.

한편, 이날 수료식에서는 교육훈련성적이 가장 우수한 이유진 사무관(지식경제부 배치)이 행정안전부장관상을, 정혜윤(기획재정부 배치)·김민하(지식경제부 배치) 사무관이 중앙공무원교육원장상을 각각 수상하였으며, 금년도에 처음 도입된 '제55기 신입관리자과정 베스트강사상'에는 신문주(한국정책분석평가협회 회장) 강사가 교육생들의 직무수행 능력 배양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선정되었다.